

## 조선시대 습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

도 윤 호\* / 김 항 아\*\* / 김 성 보\*\*\* / 임 란 영\*\*\*\* / 김 성 기\*\*\*\*\* / 주 기 재\*\*\*\*\*<sup>+</sup>

### Awareness and exploitation of wet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Do, Yuno\* / Kim, Hang-Ah\*\* / Kim, Seong-Bo\*\*\* / Im, Ran-Young\*\*\*\* /

Kim, Seong-Ki\*\*\*\*\* / Joo, Gea-Jae\*\*\*\*\*<sup>+</sup>

**요약** : 습지에 대한 인식 정도는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한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 종교, 문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습지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사료들을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료들에서 습지를 지칭하는 용어를 찾고 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였는가를 파악하였다. 약 20여 개의 단어가 습지 또는 습한 환경을 지칭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습지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농지로 전환이 가능하여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나 수경제배에 필요한 물을 댈 수 있는 수리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곳은 중요시 여겨 특별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농업생산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 많은 습지가 농경지로 개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개간, 습지인식, 습지,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Abstract** : Wetland awareness is a crucial factor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needed for the understanding of wetland awareness as associated with history, culture, and social-economics of human society. In addition,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causes and areas of destruction is importan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how people understood and managed wetlands in the Joseon Dynasty using historical record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pproximately twenty words were foun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at were used to indicate and describe wetlands and/or wet soil conditions. Most records of wetlands have a negative context. This negative attitude towards wetlands could have influenced wetland use. Most wetlands had been converted to cultivation areas especially rice paddies although some wetlands, which were used for irrigation of cultivated crops or reclaimed as cultural land had been specially managed. Because wetlands were poorly drained soil and were located near streams or rivers, they were culturally important within the environment as water for rice paddies.

**Key words** : public awareness, Joseon Dynasty, reclamatio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etland

<sup>+</sup> Corresponding author: gjjoo@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사후연구원 · E-mail: doy@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 · E-mail: hangah@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 · E-mail: ksbo@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 · E-mail: sldm11@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 · E-mail: anelian@pusan.ac.kr  
\*\*\*\*\*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 E-mail: gjjoo@pusan.ac.kr

## 1. 서론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 접이지대일 뿐만 아니라 물리-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서식처이기 때문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는 생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Amezaga et al. 2002). 사회적 요소 중 습지에 대한 인식은 습지를 훼손하기도 하고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Dahl and Johnson 1991). 습지의 전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 및 보전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그 이전에는 습지는 일반적으로 쓸모 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심지어 공해 또는 악한 것이라고 까지 인식되었다(Dahl 1990).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7세기부터 20세기 까지 전체 습지의 약 50%가 농지로 전환, 수로개발, 목초지 이용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다(Wilen and Frayer 1990).

우리나라에서도 광복과 한국전 이후 식량사정의 악화로 보릿고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식량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개간 및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습지를 미간지(未墾地)로 구분하여 초생지(草生地), 지담지(池潭地), 간석지(干潟地) 등과 함께 개간과 간척 등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다(국유미간지이용법 법률 1028호, 1962년 2월 22일, 폐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비롯하여 토지구획정리, 개답·개전, 간척 등이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이후 낙동강하류지역의 습지 중 50% 이상이 농경지로 전환되어 소실되었고(손명원과 전영권 2003), 현재 잔존하고 있는 습지들의 대부분은 국유지(농어촌공사 소유 포함)이며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유지된 곳이 많다(Joo et al. 2008, 도윤호 등 2012). 이는 정부 및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습지 보전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이기철 2008, 이상돈 2003,

Amezaga and Santamarfa 2000).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를 사회, 경제, 역사, 종교, 문화적 등과 관련지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Davis 1993, 주기재와 도윤호 2008). 특히 습지에 대한 인식은 한 시대의사회·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습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해왔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Convention on Wetlands 2008, Maltby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습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에 발간된 사료를 분석하였는데,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역사 중 약 500년 간의 긴 역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인 발달이 급진전된 시기이고, 조선 후기에는 근대화가 시작되어 습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적합한 시기로 생각된다. 사료 중 (1) 습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 습지를 지칭하는 단어를 찾고, (2) 각 단어의 사용과 의미를 통해 습지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3) 또한 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 2. 재료 및방법

조선시대에 발간된 사료 중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철종실록)과 고종태황제실록, 순종황제실록, 경국대전(노사신 등 2001), 세종실록지리지, 농사직설(김영진 1983) 등에서 습지를 뜻하는 단어와 습지의 이용, 인식 등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조선왕조실록과 고종·세종실록지리지 등은 현재 1995년 이후 전산자료로 전환되어 원문과 국역본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2005). 습지와 관련된 단어를 국문 또는 한자음으로 검색할 경우 동음어가 함께 검색되기 때문에 원문(한자)으로 먼저 검색한 후 국문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다른 문헌은 원본과 해지를 이용하여

뜻과 단어를 파악하였고 검색에 사용된 습지를 뜻하는 단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he search words and characters representing wetlands for finding rec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ords	Meaning <sup>¶</sup>	Records <sup>†</sup>
습지(濕地)	Wetland	*
습지(隰)	Upland wetland	*
습원(濕原)	Wetland	-
소택지(沼澤地)	Marsh	*
소택(沼澤)	Marsh	*
소지(沼池)	Wetland	-
소지(沼地)	Wetland	-
택지(澤池)	Wet grassland	-
수택(藪澤)	Swamp, marsh	*
저습지(低濕地)	Lowland	*
저지대(低地帶)	Lowland	*
저여(沮洳)	Bog	*
제언(堤堰)	Dam, reservoir	*
노전(蘆田)	Reed bed	*
소(沼)	Pond, marsh	*
지(池)	Pond, stream, water channel	*
택(澤)	Pond, wet grass	*
연(淵)	Pond, pool	*
수(藪)	Grass, marsh	*
습(隰)	Upland wet soil, riparian	*
저(渚)	Sandbank	*
니(泥)	Clay soil land	*
저(沮)	Wetland	*
호(湖)	Lake	*

Some meaning of words are deduced; <sup>†</sup>\*,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Cannot found i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습지를 나타내는 단어 중 소택지(沼澤地)는 우리나라에서 습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70~8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사용되지만 사료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적어, 특별히 사용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강점기(1920년)부터 1999년까지 동아일보(동아일보 홈페이지 2011)의 기사검색을 통해 사용빈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리적으로 습지를

어떻게 표기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1872지방도, 비변사인방지도, 동국여지도, 광여도 등,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2011)에서 습지를 지칭하는 지형과 지물을 검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습지에 관한 기록과 습지의 주요 소실원인으로 판단되는 개간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Kindt and Coe 2005, R Development Core Team 2005).

### 3. 결과 및 고찰

#### 3.1. 습지(濕地)를 나타내는 용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습지의 사전적 의미인 “습기가 많은 땅” 또는 “축축한 땅”을 뜻하는 20여종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Table 1). 이 중 습지(濕地)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갯벌을 습지(濕地)로 표기하기도하고<sup>1)</sup>, 마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sup>2)</sup>로도 쓰인다. 동음어인 습지(隰 역시 사전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지형이 낮고, 습한 지역으로 평지(平地)<sup>3)</sup> 또는 육지(陸地)<sup>4)</sup>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된다.

소택지(沼澤地)는 조선후기(고종 44년, 1907년)에 미개간지를 설명하면서 한 차례 사용되었는데, 미개간지에 소택지가 포함되어 있다<sup>5)</sup>. 일제강점기의 신문기사 등에서는 습지를 소택지 표기한 경우가 많고, 광복 이후에는 사용빈도가 더욱 많아진 것을 보면, 조선 후기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주로 사용된 용어임을 추정할 수 있다(Fig. 1). 현

- 1) 숙종 29년(1703년, 9월 25일) “옛날에는 강화(江華)의 사면이 습지(濕地)이므로 배를 댈 곳이 없었으나(생략)”
- 2) 정조 10년(1786년 12월 10일) “내 이제부터 거의 습지(濕地)를 벗어난 것 같다.”
- 3) 선조 30년(1597년 9월 20일) “평원(平原)과 습지(隰)를 개척하여 곡식을 심어 가꿀 바탕을 넓힘으로써 長遠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 4) 중종 31년(1536년 9월 27일) “이 굴포는 육지와 습지(濕地)가 함께 이어져 물을 건너는 곳은 겨우 20리입니다.”
- 5) 고종 44년(1907년 7월 4일) “국유의 미개간지는 백성들의 소유 이외의 들, 황무지(荒蕪地), 소택지(沼澤地) 및 간석지(干潟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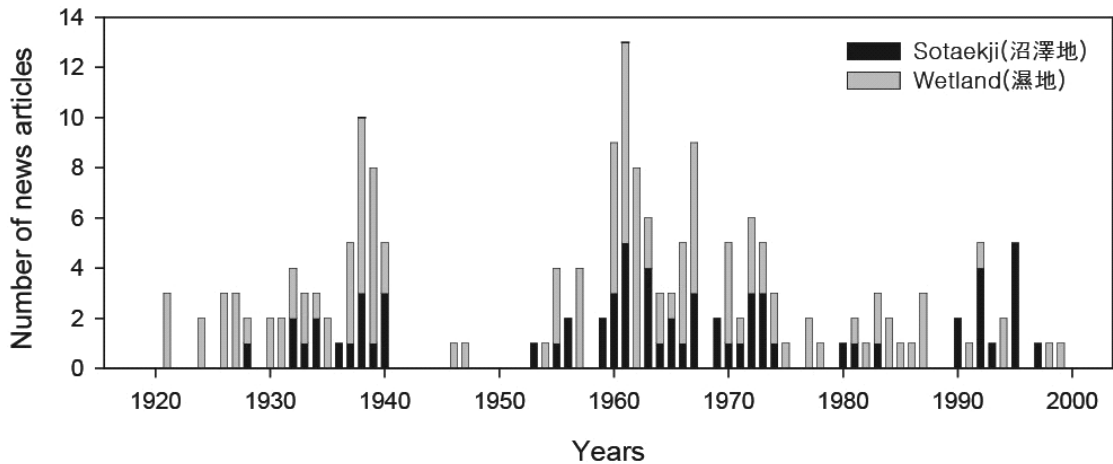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news articles about wetland and Sotaekji in Dong-A Ilbo from 1920 to 1999.

재 일본어 사전에 소택지를 “수초(水草)가 우거져 있는 수심 1m 이내의 습지 또는 저수지”로 정의<sup>6)</sup> 하고 있다(Kinkin 1993). 신문기사 중 1960년대에 소택지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것은 미개간지의 설명과 개간-간척을 언급하면서 미개간지에 포함되어 있는 소택지가 함께 언급되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습지를 수택(葦澤)으로 많이 표기하고 있는데, 소택지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최덕경 1995a), 이는 초목(草木)이<sup>7)</sup> 많은 곳으로 어로행위 및 벌목을 통한 경제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수와 관계를 행하면 대량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최덕경 1995b). 수택은 국가의 주요 자연자원으로 중국 고대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관(虞官) 즉, 산림(山林)과 수택을 맡은 관직을 두어 이를 관리해 왔다<sup>8)</sup>.

습지를 칭하는 다른 단어인 저여(沮洳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어로 “有腐爛植物埋在地下面而形成的泥沼(썩은 식물이 퇴적하여 이루어진 낮고 물기가 많은 늪)이라고 한다. 저여는 하천의 주변의 습한 땅은 물론 소금기가 많아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땅, 질퍽한 웅덩이 등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저습지(低濕地) 역시 항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상태의 땅을 지칭하고 있지만, 명사의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건조(乾燥)의 반대 의미로서 그 지역 또는 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제언(堤堰)이나 연(淵) 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습지 즉, 저수지나, 제방, 연못 등을 뜻한다. 호남 지방의 벽골제(碧骨堤)와 호서 지방의 합덕지(合德池), 영남 지방의 공검지(恭儉池), 관북 지방의 칠리(七里), 관동 지방의 순지(蓴池), 해서 지방의 남지(南池), 관서 지방의 황지(潢池) 등은 나라의 큰 저수지로 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되었다(정조 22년, 1798년 11월 30일).

조선왕조실록에서 습지를 지칭하는 단어의 사용횟수를 연대별로 나열해보면 늪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의 사용이 가장 많고, 습지(濕地), 저습지(低濕地), 수택(葦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정조 때(1776~1800년)에

6) 沼澤地“水草が茂っている水たまり。水深1m以内で、地表水面と地下水面とがほぼ一致し、ヨシ・ガマ・マコモなどが茂る”  
 7) 세종 10년(1428년 4월 11일) “전라도에는 목은 황무지가 많더니, 강원도로부터 유민(流民)들이 옮겨 와 살게 된 뒤부터는 호수와 인구가 매우 번성하고, 산림과 초목이 우거진 늪이 죄다 개간 경작되었습니다.”  
 8) 현개 4년(1663년 12월 17일) “산림(山林)과 수택(葦澤)은 나라가 보호하는 것이고, 우형(虞衡)의 업무로서 대대로 중요하게 여긴 것인데, 근래 火田의 폐단이 극심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깊은 곳도 손대지 않는 데가 없고 어느 곳도 없는 데가 없는 지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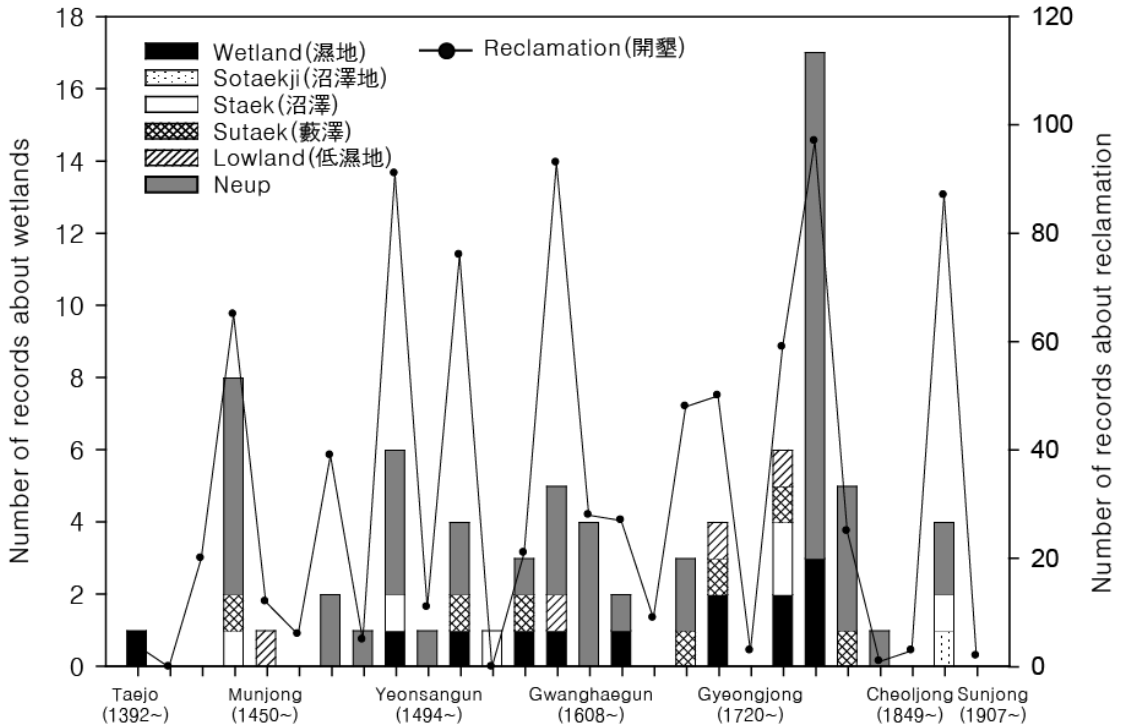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records about words representing the wetland and reclam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늪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홍수나 범람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어 늪이 되어버린 것<sup>9)</sup>이나 전정(田政)의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수전이 경작되지 않아 늪으로 변한 상태<sup>10)</sup> 등을 설명하면서 이용되었다. 이는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의 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피해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쓸모 있는 땅 즉 농경지가 버려지거나 피해를 보면 축축하고 쓸모 없는 땅인 늪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늪은 순한글로 습지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소(沼), 지(池), 택(澤), 수(藪), 니(泥) 등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땅의 습한 상태를 나타낼 때 늪으로 국역하고 있다(이남덕 1998).

9) 정조 16년(1792년 9월 15일) “금년 여름의 큰 홍수에 떠내려간 가옥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으며 제방 아래 水田과 밭田이 물에 잠겨 늪지로 변해 버렸으니 역민(驛民)인들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10) 정조 4년(1780년 9월 20일) “옛 전답은 시내나 늪이 된 것이 많고 새로 개간한 것은 대부분 양적(量籍)에 빠져 있습니다.”

### 3.2.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된 습지의 모습

광역시도를 비롯한 조선 중후기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심(潭), 포(浦), 연(淵), 호(湖), 제(堤), 지(池), 축(築)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제언(堤堰)과 마찬가지로 수리시설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곳은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강원도 지방의 지도에는 석호와 호수들을 확인할 수 있고(Fig 3a), 경기도 부평군(현재 경기도 부평시, 서울시 일부 포함)에는 곳곳에 작은 저수지인 방축(防築)의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 수리시설의 확충 모습을 읽을 수 있다(Fig. 3b). 특히 전술한 제방 중 전라도의 벽골제는 그 형태까지 상세히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 3c). 수리시설로 이용된 자연습지 또는 방축은 1872년 지방도 평안도 지역 안주목 지도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Fig. 4), 인택지(仁澤池)가 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Fig. 3 Various marks for wetlands including lakes and ditches in old maps  
 (a) Gwangyeodo(published in the early 19<sup>th</sup> century), Gangwon Province,  
 (b) Gwangyeodo, Gyeongggi Province,  
 (c) Yeojido(published in the late 18<sup>th</sup> century), Jeollanam Province



Fig. 4 A wetland and irrigation ponds in a village(1872 Gibangdo, Pyeongan-do, A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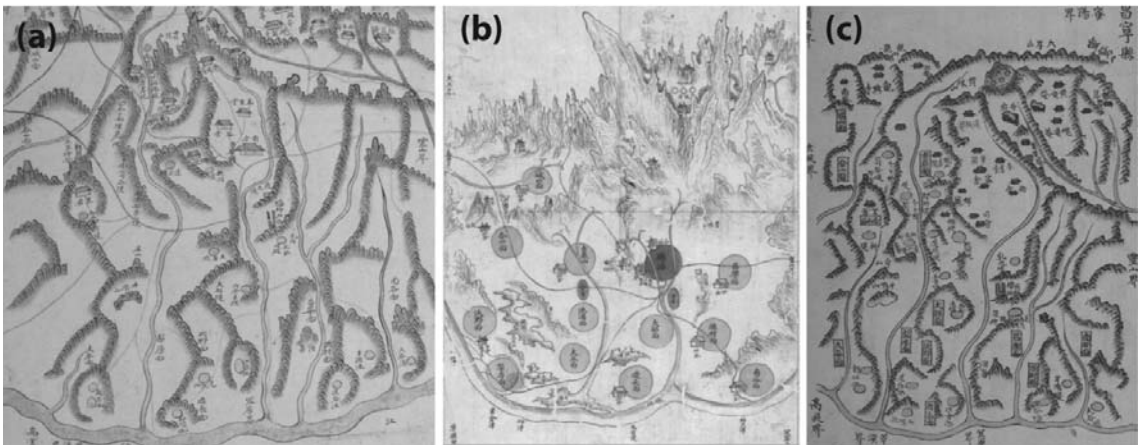


Fig. 5 Wetlands distribution in Changwon City in old maps: (a) Haedongjido(published in the 18<sup>th</sup> century), (b) 1872 Gibangdo (c) Yeojido(published in the late 18<sup>th</sup> century)

있고, 형태가 인공적인 저수지로 보이는 연지(蓮池)나 지(池)가 성벽 근처에 있어 청천강(淸川江)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습지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물 저장공간으로 이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일대의 습지의 분포를 찾아보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우포(牛浦), 사포(沙浦, 현재 사지포), 목포(木浦) 외에 용호(龍湖), 이지포(梨旨

浦), 계곡지(溪谷池) 등 많은 습지가 분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5).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작된(1918년) 실측량지도만 보더라도 우포늪과 용호 등 많은 습지가 표기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많은 습지가 개간 및 개발 등으로 인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6).



Fig. 6 Change of Upo Wetlands and around area (a) 1918 years (b) 1969 years (c) 2004 years

### 3.3. 개간(開墾)으로 인한 습지의 소실

조선 초기에는 신국가(新國家)의 건설에 당면하

여 경제상 여러 개혁이 단행되었고 토지제도 및 부세제도 정비도 행해졌다. 이와 더불어 생활환경의 조성 and 확대를 위해 농업생산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것은 신국가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해 농사기술의 개발과 농지확장이 추진되었으며, 농지확장을 위해 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간은 경지의 확대, 인구의 이동, 촌락의 형성 등 사회경제사의 큰 토대가 되고 생산기반의 구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양선아 2010).

조선초기 농서인 『농사직설』에는 초목무밀처(草木茂密處)와 저택운습황지(沮澤潤濕荒地) 등의 황무지와 습지를 수답으로 개간하여 숙전화(熟田化)하는 기술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산지를 개간하기 보다는 저습지를 개간하는 것에 대해 큰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농법과 수리시설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염정섭 2007). 수전농법의 발달로 인해 화전(火田)과 산전(山田) 등 고지대(高地帶) 보다는 내륙 저지대(低地帶)를 개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 중후기에는 토지제도의 변화로 인한 소농민의 몰락, 대지주형성, 이양법과 회전농법 발전 등으로 인해 다시 화전과 산전이 부분별하게 개발되기도 하였고, 연안간척에 많은 많은 관심이 생겨났다(염정섭, 1994, 이우연, 2003). 이에 저지대, 즉 습지가 농경지로 전환 또는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직설』 「중도 種稻」 조에는 “저택 습윤한 황지는 3, 4월 사이 수초가 성장할 때 윤목(輪木)을 사용하여 풀을 죽이고 토면이 융숙(融熟)하게 되기를 기다려 늦벼 씨를 뿌린다. 그리고 시목(柴木) 두세 동을 묶어 소로 끌어서 씨를 덮는다. 다음해에 이르러 뇌(鄉名 따비)를 쓸 수 있고, 3년째가 되면 우경을 해도 된다”라고 저습지를 개간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습지가 개간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습지를 지칭하는 단어들의 연대별 사용빈도와 개간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의 회귀상관계를 보면 습지를 뜻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될수록 개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물론 이러한 상관성이 습지를 개간하였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단어가 서로 유의적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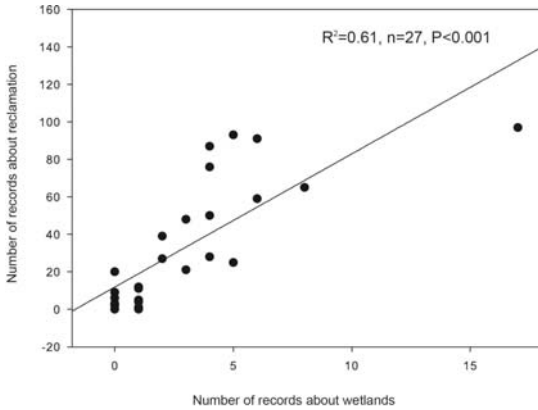


Fig. 7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records about wetlands and reclamations

습지를 뜻하는 단어 중 저습지를 비롯한 수택, 저여 등이 개간 되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1428년(세종 10)에는 농사를 권장하는 방법을 의논하면서 “全羅道地多陳荒, 自江原流民徙居之後, 戶口甚繁, 山林藪澤, 悉皆耕墾”(전라도에는 목은 황무지가 많더니, 강원도로부터 유민(流民)들이 옮겨 와 살게 된 뒤부터는 호수와 인구가 매우 번성하고, 산림과 초목이 우거진 늪이 죄다 개간 경작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451년 11월 12일(문종 1년)에는 “兩界則沮洳可耕之地甚多, 尙不起耕, 何事川防?宜下諭書, 沮洳處使民耕種, 宜下諭書, 沮洳處使民耕種”(양계는 저여처(沮洳處)에 경작할 만한 곳이 매우 많으나, 아직 기경(起耕)하지 않는데, 어찌 하천에 제방 쌓기를 일삼겠습니까? 마땅히 유서(諭書)를 내려 저여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갈고 씨를 뿌리게 하소서)와 1452년 5월 21일(문종 2년)에는 “予聞其道多有沮洳之地, 可作水田, 而民不肯爲”(내가 듣기로 그 도에는 저습한 땅이 많이 있어 수전을 만들 만한데도 백성들이 수공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습지를 개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간사업은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 972년(광종 2

년)부터 간전상직제(墾田賞職制)를 제정하여 꾸준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이평래, 1991) 개간으로 인해 습지가 많이소실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데 제한은 있지만, 토목의 발달로 인한 수로개척사업, 농업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선왕조가 들어선 15세기 초반에 습지의 소실을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의 개간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이경식 1991, 염정섭 1994). 1456년(세종 2년)에는 미간지개척법(未墾地開拓法)을 정하여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황해, 강원, 평안 3도의 개간을 장려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토지 결 수를 살펴보면 조선 개국 이후 세종대까지 매우 크게 증가하였는데 개간 장려정책으로 인한 농경지 확장되어 습지로 통칭할 수 있는 장소들은 사라졌을 것으로 추론된다(Fig. 8). 을묘왜변(1555년)과 임진왜란(1592~1598년)을 겪은 이후에도 원장부결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15세기에 집중적으로 습지 또는 진황지(陳荒地) 등을 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수전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30~60%로 추론한다. 태종대와 세종대의 농지확대 면적을 고려할 경우 약 1,000,000 결이 개간되었고 이들 중 약 300,000~600,000(약 900,000ha) 결이 수전이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습지가 개간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8). 이러한 개간사업은 1907년 7월에 국유미간지이용법이 제정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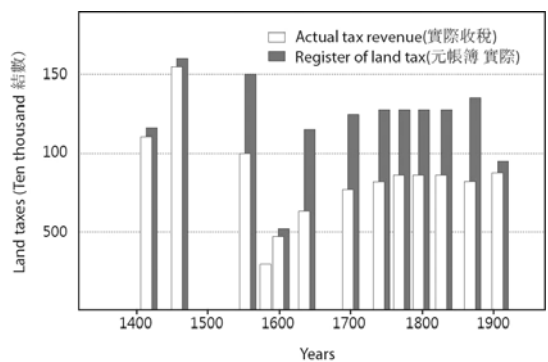


Fig. 8 Change of cultivated land areas (land taxes) during the Joseon Dynasty (국사편찬위원회, 1994)

공포 되면서 더 대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토목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농경지로 개간이 가능한 면적은 약 800,000ha로 국유미간지로 속해있던 소택지의 상당부가 이후 일제강점기에 개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4. 습지에 대한 인식

습지 또는 늪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나 빠져 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sup>11)</sup> 습지의 찬기운이 몸을 해친다<sup>12)</sup>고도 생각했다. 더욱이 습지는 육상교통 및 이동에 방해원인<sup>13)</sup>이 되고, 성축 또는 기반시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원인<sup>14)</sup>으로 실생활과 개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장소였다. 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추포(菰蒲) 즉 부들과 물억새가 우거진 곳 또는 습지 주변지대를 설명하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35년(세종 17년)에는 “(생략) 정나라에 도적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추포의 수택으로 모아 들였습니다.”라고 기록하여 내용적 의미로는 풀이 우거져 도적이 모이기 쉬운 곳으로 악한 장소(조선왕조실록 역자 주석참조)로도 이해하고 있었다.

18세기 초 미국에서는 습지가 말라리아(malaria)를 옮기는 모기의 서식처이고, 습지에서 나오는 습기를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독기로 인식하여 습지의 개간을 의무로까지 확대하고 있었다(Dahl 1991).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에 말라리아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질(瘧疾)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동의보감 잡병편(東醫寶鑑雜病篇), 질(疾)에 학질의 원인(病之源)에 대해 설명하면서 “『황제내경 黃帝內經』에는 여름철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가서 학질이 생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학질과 모기, 습지와 관계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습지의 부정적인 인식은 습지를 개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전술한 바와 같이 우관을 두어 산림과 수택을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규모가 크거나 수리시설로 이용 가능한 곳,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1798(정조 22년) 안성택과 이광한 등 관동지방에서 올린 농서 내용 중 “西湖雖禁爲田, 雲夢豈靳作”(호수를 밭으로 만드는 것은 금해야 하겠지만 늪지를 밭으로 만드는 것이야 어찌 금지하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습지를 제외한 곳은 훼손해도 무관한 곳으로 여긴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지도에도 규모가 크거나 수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습지는 표기되어 있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일부 기록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15세기 중반 개간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천변(川邊)을 수전으로 개간하기까지 이른다. 이때 하천주변에 자연적인 방축을 허물고 거기에 자라고 있던 초목을 베어 수전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하천이 범람하여 경작에 어려움이 주었다<sup>15)</sup>. 천변습지(川邊濕地)의 중요한 생태적 기능인 범람방지 및 저류지(貯溜池)로서의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습지의 한 종류인 노전(蘆田)은 전답(田畓), 죽전(竹田), 저전(苧田) 등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땅으로 표현되고 있다<sup>16)</sup>. 이는 갈대는 베어 지붕을 엮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11) 정조 10년(1786년 12월 10일) “내 이제부터 거의 습지(濕地)를 벗어난 것 같다”

12) 명종 20년(1565년 4월 6일) “지금 주상이 망극한 때를 당하여 만약 습지에 거처하여, 지기(地氣)가 스며들으로써 행여 편찮으시게 된다면 일국 신민들의 근심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13) 연산 8년(1502년 4월 30일) “지금 또 호송(護送)한다 평계하고 지척의 거리를 반드시 늪(沼)을 넘어 와서 여러 날 목게 되면(생략)”

14) 성종 23년(1492년 11월 16일) “땅이 진펄(沮洳)이 많고 또 돌이 없어서 쌓기가 어렵습니다.”

15) 성종 1년(1470년 10월 10일) “무릇 냇가(川畔)에는 모름지기 푸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야만 가히 물을 막고 전답(田畓)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모두 다 베어 땀감으로 삼으며, 심한 자는 갈아서 전답을 만들므로 물을 막을 수가 없고 냇가에 있는 전답이 변하여 모래와 돌밭이 되어버려서 피해가 매우 큼니다.”

16) 선조 26년(1503년 12월 16일) “황해도도의 노전(蘆田)은 이미 정전(正田)이 되어 세수(歲收)가 매우 많으니 이익이 제일 큼니다.”

## 사 사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C00168). 원고를 검토해주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최덕경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참 고 문 헌

김영진. 1983. 농사직설 역문. 농촌경제 6: 91-101.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 24권. 국사편찬위원회

노사신, 윤국일, 김석형, 홍기문. 2001. 경국대전. 여강출판사.

도윤호, 김지윤, 임란영, 김성보, 최종윤, 주기재. 2012. 경상남도 내 습지의 공간 분포 및 사회적 특성. 하천호수학회지 45(2): 252-260.

동아일보 홈페이지. 2011. <http://www.donga.co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2011. <http://kyujanggak.snu.ac.kr>

손명원, 전영권. 2003. 낙동강 하류 연안 자연습지의 자연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 66-76.

양선아. 2010. 조선 후기 서해연안 간척의 기술적 과정과 개간의 정치. 쌀삶문명연구 4: 49-74.

염정섭. 1994. 15-16세기 수전농법의 전개. 한국사론 31: 73-144.

염정섭. 2007. 조선 초기의 수리정책과 김제 벼골제. 농업사연구 6(2): 79-105.

이경식. 1991. 조선초기의 농지개간과 대농경영. 한국사연구 75: 49-88.

이기철. 2008. 한국과 미국의 습지갈등 비교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0(1): 77-87.

이남덕. 1998. 한국어 어원연구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28.

이상돈. 2003. 우리나라 습지 보전 현황과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5(1):

1-13.

이우연. 2003. 18 19세기 산림황폐화와 농업생산성. 경제사학 34: 31-57.

이평래. 1991. 고려후기 수리시설의 확충과 수전개발. 역사와 현실 5: 158-188.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2005.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주기재, 도윤호. 2008. 람사르총회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 경남발전연구원논문집 93: 11-21.

최덕경. 1995a. 중국고대산림수택의 실태와 파괴요인. 부산사학 28: 121-159.

최덕경. 1995b. 전국 진한시대의 산림수택에 대한 보호책. 대구사학 49: 155-207.

Amezaga J, Santamarfa L. 2000. Wetland connectedness and policy fragmentation: steps towards a sustainable European wetland policy.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Earth, Part B: Hydrology, Oceans and Atmosphere 25(7-8): 635-640.

Amezaga J, Santamaria L, Green A. 2002. Biotic wetland connectivity-supporting a new approach for wetland policy. Acta Oecologica 23(3): 213-222.

Convention on Wetlands. 2008. Culture and wetlands a Ramsar guidance document. Convention on Wetlands Culture Working Group Swaziland Gland. pp 10-38.

Dahl, TE and Johnson CE. 1991. Wetlands-Status and trends in the conterminous United States mid-1970's to mid-1980's.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Washington, D.C. 30 pp.

Dahl, Thomas E. 1990. Wetlands losses in the United States 1780's to 1980's.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Washington, D.C. 13 pp.

Davis TJ. 1993. Towards the Wise Use of Wetlands. Wise Use Project.Ramsar

- Convention Bureau, Gland, Switzerland.
- Joo GJ, Lineman M, Kim, DK, Jeong KS, Do Y, Shin CK. 2008. Riverine wetlands in the lower NakdongRiver basin in Korea: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Nakdong River Watershed Environment Office, Nakdong River Environment Research Center. pp 20-58.
- Kindt R, Coe R. 2005. Tree diversity analysis. A manual and software for common statistical methods for ecological and biodiversity studies. World Agroforestry Centre(ICRAF), Nairobi.
- Kinkin KK. 1993. Basic Japanese-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 Maltby E. 1991. Wetland management goals, wise use and conserv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1): 9-18.
- R Development Core Team. 200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www.R-project.org>.
- Wilens BO, Frayer WE. 1990. Status and trends of US wetlands and deepwater habitat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3:181-192.
- 논문접수일 : 2012년 01월 09일
  - 심사의뢰일 : 2012년 01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02월 27일